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 編輯人 崔世又 · 印刷人 方又 · 主幹 洪起三 · 編輯局長 洪田 · 編輯部長 韓萬洙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實習農場 현대化計劃 확정

年內 착공, 83년도 완공 예정

土地利用 등 6개플랜 總1億9千여만원 投入

본교 實習農場이, 農林大造景科연구진 (연구책임자=孫昌求교수) 에 의해 지난달 20일 완성된 「實習農場 建設基本計劃」에 의거 총 건설비 「1억9천1백41만8천7백」원을 들여 올 후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 농장은 83년도에 완공을 보게되어 「초現代化」하게 될 이상적인 시설을 갖추어 「敎授들의 실험 연구」와 「學生들의 실習」에 큰기여를 하게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示範的 農業敎育場」으로의 역할도 담당지역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게된다.

京畿道 高陽郡 元堂面 食物計劃」「耕地整理計劃」「施設寺里 산 1백78번지에 위치하는 本校의 실습농장(농장장=이해풍박사) 은 그지역이 도시계획개발 제한구역을 벗어난 곳이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울폭반기부터착공에들어가 83년도완공예정인 本농장의 총면적은 4만9천7백83평으로 그중 林野地가 2만6천여평, 다음이 논 1만8천여평, 밭 3천5백여평나머지 6백여평은 雜種地로 되어있다.

그럼에 현재까지 확보된 면적은 4만2백92평에 이르고있다. 건설계획은 「年次別 投資」로 육해에는, 본부건물, 사벽, 농기계구입등 9개부문에 총 4천6백38만2천1백원, 80년도엔 온실, 비닐하우스등 9개부문 총 9천4백7만6천6백원 81년도엔 관개시설공사를 비롯한 3개부문 총 1천6백69만원, 82년도엔 양어장 공사를 비롯한 3개부문 3천77만원, 마지막 83년도엔 사슴방목장건설비 3백50만원을 투자하게되어 총규모 1억9천1백41만8천7백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實習利用計劃」「土地利用및 動線計劃」「耕地整理計劃」「施設物計劃」「用排水計劃」「造景計劃」등 모두 6개분야로 이루어졌다. 실습이 용계획은 농림대 각소속학과 외에도 가정과의 가정원에, 미술과의 야외실기를 비롯, 학도호국단수련장, 대학생단합대회등을 치를 수 있는 농장이용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계하도록 되어있다. 또 토지이용및 농건계획은 실습교육과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동시에 생산단지의 상호보완적요소도 가미, 생산활동도 극대화하도록 되어있으며 개발탠은 모두 학생들의 효최종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교 기획실裴鍾根실장이 발표했다.

◇3개 대학원 합동 學位授與式이 지난31日 열려 博士9名, 碩士 39名을새로 배출했다.

후기 學位授與式 성황

博士 9, 碩士 39名 輩出

79학년도 후기 博士·碩士및 연구과정수료자의 학위수여식이 지난 31일 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 합동으로 중강당 에서 열렸다. 박사9명, 석사39명(대학원15명·경영대학원 8명 행정대학원16명), 연구과정수료75명 (경영대학원34명·행정대학원41명) 을 새로이 배출했다.

삼귀의례로 시작된 이날 수여식 에는 鄭在覺총장및 각 대학원장및 학처장등교내의 귀빈들과 다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鄭총장은 축사를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자못 중요하다. 학교나 사회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 현실을 직시하고 더나아가 우리의 장래를 밝힌다는 자세로 더욱 진리 탐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의 박사학위 수령자 명단과 논문제목은 다음과같다。 (略歷 3면참조)

◇博士學位수여자와 논문제목

▲李瑛雨법학박사=韓國社會에있어서의 犯罪統制에 관한 研究▲金永秋 법학박사=經濟秩序에 있어서 自由와 規制에 관한 研究▲金光震정치학박사=韓國民族 主義의 特性研究▲金仁濟경제학 박사=麥店市場에서의 價格變動 要因의 計量的 분석▲趙仁錫경제학박사=소련의 經濟政策과 經濟發展에 관한 연구▲金仁湖 이학박사=韓國 各지방에서의 金屬類의 腐蝕敎 策定에 관한 비교연구▲金炅茜 농학박사=N-(phosphonomethyl) 에 의한 Robinia pseudo-acacia의 枯殺에 관한 研究 ▲金鍾奎농학박사=韓國現代詩에 나타난 佛敎思想연구。

〈관계기사3면〉

경영관리硏, 테이프 出盤

한국 최초 경영강좌 시도

본교부설 경영관리연구소 (소장=吳碩永박사) 에서는 진흥 (朴康植·본교경상대교수) ▲불확타개책 (金浣三·매일경제신문정경부장) ▲한국산업구조의 개선 (熊浩東·金東敏·본교경상대교수) ▲세계경제 전망 (金東敏·본교경상대교수) 등을 주제로 한 경영강좌를 개최하고 나아가 불교학보 영인발간 학계요청에 따라 불교에관한 질문과·한국불교학계의 요청에의해 지난 7月末 불교문화연구소(소장=金雲學)에서는 불교학보 1集에서 5集까지의 影印本을 발간했다。

지난 63年부터 매년 발간되던 불교학보는 지난 7月末에 영인본과 함께 발간된 16集으로 16冊을 맞이하게 되었다。

〈관계기사4면참조〉

◇석조관→明進館 ◇본관→大學本館 ◇문리1·2·3공학관→元興館 ◇G관→惠化館 ◇사대관→林園館 ◇북지관→香園館 ◇선수합숙소→金剛館

實習農場 건물 명칭

〈해설기사 4면참조〉

"文學전통 體系的 정리"

韓國文學硏究所 설립

일제기의 동국문학전통과 우수한 학문적 체계정으로 韓國文學硏究所설립계획 (소장=吳英泰박사) 에서는 진흥 (朴康植·본교경상대교수) ▲불확타개책 (金浣三·매일경제신문정경부장) ▲한국산업구조의 개선 (熊浩東·金東敏·본교경상대교수) ▲세계경제 전망 (金東敏·본교경상대교수) 등을 주제로 한 경영강좌를 개최하고 나아가 불교학보 영인발간 학계요청에 따라 불교에관한 질문과·한국불교학계의 요청에의해 지난 7月末 불교문화연구소(소장=金雲學)에서는 불교학보 1集에서 5集까지의 影印本을 발간했다。

이번 계획의 연구진은 李明善 연구助員에는 學生 姜泰昊(造景·4) 군등7명이 참가, 교수 학생이 혼연 구책일자로, 연구위원에 金炅茜(造景·4) 군등7명이 참가, 교수 학생이 혼연 일체로계획을 수립하였다。

원래 대학의 실습농장이라 하면 대학의 農科大學이나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술연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치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나 가기위해 따라주어야 몇 할 가지 提言을 보면, 첫째, 이번 건설에 충분한 財源의 확보와 행정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직하고 둘째 교육국의 투자에대한 적극적의욕이 있어야하고 셋째 과학관련 등에 10여개의 스 일경 완공된 예정이다。

본교 硏究소는 現代 古典 比較 創作文學으로 사업을 구분, 추진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자료의 수집 발간 ②자료전시 ③논문집, 창작집의 발간 ④외국학계 문인과의 교류 ⑤창작활동의 지원 ⑥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第5代 護國團 출범에 李潤根군

신임 師團長에 徐廷甲교수

徐廷柱(문리대) 吳碩奎(문리대) 제5대 學徒護國團 新舊간부 인계·인수식이 지난 25일 오후4시 학생처 지휘관에서 있었다。

鄭在覺總長및 각학처 실장, 관계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베풀어진 이날 식전에서 鄭總長은 「무식은 유행이 아니라 사회의 정수 가 되어야 하며, 지식인의 지조와 자부심을 갖기전에 먼저 자격을 갖추어줄것」과 또한 「6·25때 歷史에 비해 침체된 상태에 놓여 있는 본교 실정에 비추어 더욱 精進해야 할것이다」라고 당부했다。이어 김기수여식과 徐廷甲신임단장 취임사가 있었다。

鄭총장은 「신임의 요원들을 선수들에 시행해보는것이 어떨지냐」고 야구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다음 대회에는우승을 안으라는 격려와함께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26일의 선수권대회에서는 의외로 영남대에 져여1회전에탈락했다。

野球部, 추계대회 준우승

총장실서 우승컵 전달

본교 野球部는 지난달23일 폐막된 단합아구추계대회에서 漢大와 高大을 잇달아 제압, 기말을 트렸으나 東亞·建國에 분패함으로써 3勝2敗를 기록,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24일 대회 준우승컵 증정식이 총장실에서 鄭在覺총장및 鄭允武교무처장, 金剛周총무처장, 배성자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鄭총장은 「심판요원들 정중히 대하아구추계대회에서 漢大와 高大을 잇달아 제압, 기말을 트렸으나 東亞·建國에 분패함으로써 3勝2敗를 기록,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24일 대회 준우승컵 증정식이 총장실에서 鄭允武교무처장, 金剛周총무처장, 배성자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鄭총장은 「심판요원들 정중히 대하아구추계대회에서 漢大와 高大을 잇달아 제압, 기말을 트렸으나 東亞·建國에 분패함으로써 3勝2敗를 기록, 준우승에 머물렀다。

獎學生 名單 발표

首席·優等·考試등 2백17名

學生處(처장=崔和박사) 에서는 79학년도 제2학기 교시장학생 45명을 발표하였다。이들 선발학생은 교시장학금의 혜택과 아울러 교시반에 입학하여 올려 교시장학금의 혜택을 받게되며 지난 25일 확정, 72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수석장학금 수혜자는 경주대및 동남·수원·경주대등 총1백59명, 우등장학생 수혜자는 총1백13명이며, 영예의 전체수석은 평점95·20을 얻은 황수명 (화학·4) 군이 차지했다。

한편 고시반 (지도교수=鄭用吉) 에서도 79학년도제2학기 고시장학생 45명을 발표하였다。

學生處(처장=崔和박사) 에서는 79학년도 제2학기 교시장학생 수혜자 명단과 논문제목은 다음과같다。

◇博士學位수여자와 논문제목

▲李瑛雨법학박사=韓國社會에있어서의 犯罪統制에 관한 硏究▲金永秋 법학박사=經濟秩序에 있어서 自由와 規制에 관한 硏究▲金光震정치학박사=韓國民族 主義의 特性硏究▲金仁濟경제학 박사=麥店市場에서의 價格變動 要因의 計量的 분석▲趙仁錫경제학박사=소련의 經濟政策과 經濟發展에 관한 연구▲金仁湖 이학박사=韓國 各지방에서의 金屬類의 腐蝕敎 策定에 관한 비교연구▲金炅茜 농학박사=N-(phosphonomethyl) 에 의한 Robinia pseudo-acacia의 枯殺에 관한 硏究 ▲金鍾奎농학박사=韓國現代詩에 나타난 佛敎思想연구。

〈관계기사3면〉

學生證 재발급

10日~15日限

새학기를 맞아 학생과에서는 학생증분실자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日부터 15日까지 6일간 재발급 하기로 지난날 결정하였다。

학생처 (처장=崔和박사) 에서는 이번 학생증 재발급 기간에 한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學生處 人事

學生處(처장=崔和박사) 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학생처장 김기수 ◇학생과장 김기수 ◇학생과 학생계장 김기수 ◇학생과 학생계 김기수 ◇학생과 학생계 김기수 ◇학생과 학생계

早期 開講과 연학풍토

사설

이미 다 알고 있는바와같이 石油波動을 겪은 뒤부터 우리나라의 各級學校에서는 夏學放學期間을 줄이고 있는 實情이다。그理由가 冬期의 燃料使用을 되도록 줄이고 冬季放學을 늘리려는데 있음은 물을것도 없다。그뿐 아니라 특히 大學 같은데서는 授業期間이 前學期가 길고 後學期가 짧으며 따라서 여름방학을 可及的 단축하고 第2學期의 강의를 월수있는限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된 處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아 본교의 早期開講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그전같으면 8월20일에 개학하여 10일간 동록을 받고 그리고 9월초에 개강하는것이 상례였을 것인데 금년에는 지난 20일에 학교를 열고 이어 23일부터 講義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이는 색 잘된 일이란 뜻이다。이처럼 개학하기가 바쁘게 끝낸 일인것같다。

前學期이든 後學期이든 방학이끝나기가 무섭게 강의가 명실공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일이 아니다。아무리 학교 당국이나 교수가 講義를 알려고 서둘러 봤댔자 學期를 학생이 강의를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않으면 착실한 강의는 진행될수 없는 법이다。

지난날을 돌이켜볼때 開講이 되어도 一週日쯤 보낸야 비로소 學生들이 방학때의 늘면 氣分을 씻고 學課에 熱을 올릴만큼 학습을 의 開講이 빨랐는데도 學生들의 受講態度는 전과달리 진지했다。이같이 오늘을 本校生의 受講態度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우리 大學校도 이제 秩序가 바르게 잡혀지고 원숙한 학생들의 學校生들이 차츰 자한것은 放學에 대한 관념을 종전과는 달리 생각한데문이라고 여겨진다。물론 방학이란 學校生活의 한템포를 떠난것이지 결코 學問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닌줄 안다。방학 중 이용하여 心身을 단련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平素에 모자란 과목을 補充하는편 새로 趣味를 느낀 과목에 대해 공부한다고 생각한다。本校生들의 대부분이 지난 夏季放學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義務를 시작할수 있었고 또한 學生들의 受講態度도 진실하지 않았는가한다。뿐만아니라이번에 本校生들자신 스스로 한가지는 그간 大學生의 本分을 잊고 不穩한 行動을 하거나 그로 인해 不美스럽게 죄생된 자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번에 본교가 종래와는 달리 빨리 개강할수 있었고 또한 不法的인 활동을 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大學校도 이제 大學生本然의 자세를 되찾게된 증거라 할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는 學生들 스스로의 큰 努力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유해로서 4周를 맞는 學徒護國團이란 組織의 힘도 기여했으리라고 믿는다。

앞으로 本校生들에게 바라고 싶은것은 學問的 實力의 면이다。勉學의 본위가 養成되며 따른 연히 實力이 養成되기 때문에 크게우려할 問題는 못된다。다만 어떤學問을 교실에서 배우는것만으로 滿足하지말고 시간나는대로 그에 關한 研究하여주도록 당부해 두고싶을뿐이다。이번學期에도 不過 各大學校學生들의 實力을 겨루는 學術大會가 있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렇機會에 本校生들도 우리學校에 대한 종전의 기초문제를 정도로 보고 기울여 있음을 알수있다。그런데 이번 學校當局도 이를 참작하여 學生들 스스로 한편 學問의 實力을 기르는데 크게 힘썼다。

여느때 같으면 방학동안에는 建物수리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學期 開學에 임하여 環境의 造成에 크게 힘썼다。

物수리같은 것은 방학중에 이미 다 알고 있는바와같이 石油波動을 겪은 뒤부터 우리나라의 各級學校에서는 夏學放學期間을 줄이고 있는 實情이다。그理由가 冬期의 燃料使用을 되도록 줄이고 冬季放學을 늘리려는데 있음은 물을것도 없다。그뿐 아니라 특히 大學 같은데서는 授業期間이 前學期가 길고 後學期가 짧으며 따라서 여름방학을 可及的 단축하고 第2學期의 강의를 월수있는限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된 處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아 본교의 早期開講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그전같으면 8월20일에 개학하여 10일간 동록을 받고 그리고 9월초에 개강하는것이 상례였을 것인데 금년에는 지난 20일에 학교를 열고 이어 23일부터 講義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이는 색 잘된 일이란 뜻이다。이처럼 개학하기가 바쁘게 끝낸 일인것같다。

前學期이든 後學期이든 방학이끝나기가 무섭게 강의가 명실공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일이 아니다。아무리 학교 당국이나 교수가 講義를 알려고 서둘러 봤댔자 學期를 학생이 강의를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않으면 착실한 강의는 진행될수 없는 법이다。

지난날을 돌이켜볼때 開講이 되어도 一週日쯤 보낸야 비로소 學生들이 방학때의 늘면 氣分을 씻고 學課에 熱을 올릴만큼 학습을 의 開講이 빨랐는데도 學生들의 受講態度는 전과달리 진지했다。이같이 오늘을 本校生의 受講態度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우리 大學校도 이제 秩序가 바르게 잡혀지고 원숙한 학생들의 學校生들이 차츰 자한것은 放學에 대한 관념을 종전과는 달리 생각한데문이라고 여겨진다。물론 방학이란 學校生活의 한템포를 떠난것이지 결코 學問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닌줄 안다。방학 중 이용하여 心身을 단련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平素에 모자란 과목을 補充하는편 새로 趣味를 느낀 과목에 대해 공부한다고 생각한다。本校生들의 대부분이 지난 夏季放學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義務를 시작할수 있었고 또한 學生들의 受講態度도 진실하지 않았는가한다。뿐만아니라이번에 本校生들자신 스스로 한가지는 그간 大學生의 本分을 잊고 不穩한 行動을 하거나 그로 인해 不美스럽게 죄생된 자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번에 본교가 종래와는 달리 빨리 개강할수 있었고 또한 不法的인 활동을 하는 학생이 없었다

호국단 4돌…그 功過를 살핀다

학생의 能動的 참여 유도해야

「무관심」 극복이 최대 관건

「낭비와 혼란지양…본연의 면학자세로」

「代議」 기능유지위해 노력, 성과는 미흡

◎…본교 학도호국단(以下 호국단)은 1975년 6월25일 창단된 이래 호국단체제의 정착 ◎…학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二面敎學, 一面護國」의 기치아래 「7천 동국인의 ◎…대변자」구실을 해야하는 호국단은 이제 제5대를 맞아 지난 25일 신구임원 교체식이 ◎…을 갖고 1년간의 시한항로로 출범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호국단에 대한 태도가 공…◎ ◎…정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가」 하는 문제에는 일부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4돌을 맞은 호국단의 창단의의를 되새겨보고 그동안의 행사를 통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새관계를 기대해본다. ◎…직한 호국학도상을 살펴봄으로써 호국단, 학교, 학생간의 〈편집자주〉

Ⅰ. 호국단 창단과 總學生會

본교 호국단은 1975년의 호국단 선거령(대통령令) 과 선거법에 의해 6월25일 창단되었다.

이전의 총학생회 체제가 해체되고 호국단 체제로 변환된 것은 「일원의 학원소요사태와 어수선했던 학원가를 정비하여 면학으로 정진하는 학원 분위기 조성」을 확립하기 위한것이었다.

사회적인 통념을 누리면서 사회의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생은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가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때 대학인들이 구국대열의 선봉에서 헌신했던 학도병」의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학생활동의 체질개선은 그 의미를 대학자만 처음부터 많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호국단을 학생들부터 관심과 조직 조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총학생회는 학생 스스로 선출했기 때문에 학생측에는 그들의 대도를 「애정」을 갖고 지켜볼 일종의 의무」가 인정되었다.

또한 총학생회는 사회적 능으로 보나 자치활동의 주무대로보나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여의식과 사회성을 기를수 있는 「전진한 정수」의 단계를 대학생에 베푼다는 교육적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총학생회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폐단을 갖고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 따른 인적 물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상당한 낭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공명선거에 따른 문제와 처음의 공약이 대부분 空約으로 끝난다는 점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인 경향이었던 대학생의 사회참여 등 학생사회의 문제점들이 대학생의 의견이 학교측에 반영되지 않는 점 그리고 70년대 초반에서는 체제반대 운동이 되었다는 점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남아있다.

<4. 5代 호국단 간부 인수 인계식 광경>

이러한 인선방법은 많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신임을 받는것 등 학술세미나, 간담회, 신입생환영회, 동국축전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려 했고 도서관방학시설에 이어 운방시설의 완비, 경축대전설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각종 유대관계 파내지원사업, 웅원부육성지영여가인문사업, 동국 T셔츠판매, 체육부위안, 각종 출판물간행물의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교내·외적으로 속출하는 문제가너무 많아 잘되는 일보다 그만큼 난관도 많았다. 또한나 커다란 문제는 호국단운영이 학생들과는 일부 유리되어 있는 점이다. 학생들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면 운영에산파 집행 그리고 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해야했다. 정확 예산집행에 따른 +α가 있다하여도 결산을 밝히지 않는것은 학생들과 유리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축전기간에 기획했던 대학순강연회가 가을로 미뤄진것도 참신했던 기획에 반해 여기 상응하는 조직적인 진행이 미약했던 탓이었다. 유산된행사의 내용을 밝혀야 하는 점 교양학부 소관부처가 폐지된 후 기존의 교양학부 각종행사를 전혀 외면했던 점 간부와 책를 사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행사의 어려운 처지와 그부 주대의 어려운 처지와 그부 무지라도 전체학생이 호응할 수 있는 규모로 유치하겠다고 「소수전에」의 폐부를 밝힌다.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태도, 경주대와의 유대관계, 도서관문제, 동우탈주변 정학, 식당, 서점, 휴게실, 학생회관 화장실등 해결되야하는 학생복지문제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다는 주사 단장은 54년 마산출생으로 74년 본교입학, 78년 2학기 복학.

〈培〉

Ⅱ. 호국단체제의 토착화

본교 호국단은 처음부터 호국단체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제2대 사단장인 김 燕년운 신임인원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호국단의 체질개선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선에 따른 문제는 학교에서 빠른 시일안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되어야 할것같다.

그리고 각부처 책장직의 성격도 다음대의 간부로서의 의미를 부여, 계획적 시간적으로 실행되어야할 것이다.

수해놀고 그결과를 맺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 호국단 간부는 1년의 운영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前代의 경험에 비추어 새롭고 창의적인 노력이 따라야한다.

일부 학생들의 무관심과 냉소적인 참여도가 낭은 경우 그들을 이끌어갈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또한 학생과 교수 또는 학생과 직원사이에 어떤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제4대 호국단의 虛와 實

제4대 호국단의 행사면에서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었다. 각종 학술세미나 간담회 등 2학기간을 통해 학술 외부연에인을 초청하는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려 했고

정년퇴임 교수석

30년 몸담았던 東岳… 餘生도 기우려

"서운하지만은 않아… 40년 교직"

徐廷甲 〈前法政大 法學科敎授〉

교직생활 40여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다.

45년 京都帝大 法學部를 졸업하고 63년 본교 법정대학 강단에 선뒤 줄곧 동악의 학문증진에 힘쓰신 교수님은 비록 정년퇴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물러나지만 그다지 섭섭하지는 않다면서 짜여진 시간속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참다운 연구와 좀더 세련된 논문을 작성할수 있어 좋을뿐아니라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은 강의를 계속할수 있으므로 퇴임했다는 느낌이그리 절실하지는 않단다.

동산을 매우 좋아해서 주일마다 근교의 산을 오른탓인지 거의 빠짐이 없는 교수님은 아직도 정정하시다. 학계에 몸담으면서 한번도 교수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껴보지 않은 교수님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타직업보다 못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또 훌륭한 제자들이 속출할때 누구보다도 보람을 느끼므로 교직은 天職이라고 하신다.

그동안 「유가증권 법리」, 「주석어음수표법」 등 14권의 책을 저술한 바있는 교수님은 69년부터 71년까지 도서관장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관리적은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전형적 學者타입.

평소에 근면검소하고 남과의 다툼을 모르며 자의시간에는 매우 열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접촉해보면 그 인격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변의 평인데 학점이 짜기로 유명하기도했다고.

당신의 학창시절과 비교해 볼때 요즘의 대학생들은 총명하고 실용적이지만 학문에 대한 진지성이 부족한 것같다면서 "매사에 충실하고 학문에 열중해서 사회의 유능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퇴임인사를 대신하셨다.

체력이 허용할때까지 연구활동을 계속하시겠다는 교수님은 환갑이 넘은 얼굴에도 학문에의 의욕이 넘치고 있었다.

"미진했던 회화교육 아쉬워"

吳碩奎 〈前 文理大 英文科敎授〉

1952년본교에 부임하신 이래 금년8월31일로 정년퇴임하시는 외국어교육원장 吳碩奎(문리대영문과) 교수님. "근30년간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것이 섭섭하나 자기충실을 기할수 있는 시간을 얻은것으로 자위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히시는 노학자님은 짚은 회상에 잠기시는듯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제까지는 여러가지 면에서 분주한 생활을 했는데 직책을 떠난 이후로는 못다한 자기학문·정신적인 충족작업을위해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이 아니라, 좋는 생활을해야겠다"고 말씀하신다.

73년 외국어교육원장에 취임하신 이래 7년동안 외국어교육원을 해오신 교수님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외국어속담의 정상적인 방법은 회화를 먼저 배우고 글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나의 소신이고 교육계의 방향이므로 미력을 다했으나 시설부족·요원부족·커리큘럼상의 애로때문에 충분한 회화교육을 못맡겨이 아쉽다"고 하신다. 오늘처럼 국제정세·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현대 대학생의 바람직한 상에 대해 "학생들이 시대에 부응하기 보다는 조금의 세계적·문화적 위치 경제적사정등 모든 것을 깊이 깨닫어서 좀더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학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상"을 강조하셨다.

본교 재직시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4·19직전, 본교분위에 앞장선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당국에 각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던일"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셨다. 일제치배하서 학창시절을 보낸 교수님이 민족교육을 동감하고 교육계에 투신한지 4십여년이란 세월이흘렀으나, "조금도 후회없이 자랑스럽게 정년퇴임을 아쉬워 하시는듯했다.

"나는 영원한 學生…英語공부 시작할터"

徐廷柱 〈前 文理大 국문과敎授〉

東國이 낳은 世界詩人으로서 30여년간 모교에서 후진양성에 몸바쳐온 未堂 徐廷柱교수는 동악을 떠나면서도 그의 정신적 삶의 「永生」을 피력했다.

『육신은 늙어 소멸하지만 정신의 생명은 자손에 의해 혹은 제자에 의해 영생합니다. 후배이며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바친 30년은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 의해 영생하니까요.』

끊임없는 시세계의 변신을 거듭해온 그는 최근 자신의 작품경향을 「자전시」로 요약한다.

『현대인은 행동에 눌려 여유를 잃었다. 자연스런 본질적 삶이 위축되면 생활만을 만복할 뿐이죠. 詩가 행동과 스토리를 가져야 한다는것은 현대사회의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詩는 스토리가 없는 서사시였다는 점과 小說은 사건을 다루되 「수사학적이야기」가 곁들을뿐인 「수다스럽다」고덧붙인다.

1. 委員會構成 및 진행과정

本校 각 건물의 고유이름 확정

東國人여망 부응, 「건물명칭위」서 추진

明進·惠化·學林館… 前身校名도 따와

다각적 검토후 확정… 적극 사용 바라

아쉬움을 가셨으면 바, 총장은 의미의 뜻풀이 것이 서운하지만은 않아 … 40년 교직" 교수님은 69년부터 71년까지 도서관장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관리적은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전형적 學者타입.

평소에 근면검소하고 남과의 다툼을 모르며 자의시간에는 매우 열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접촉해보면 그 인격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변의 평인데 학점이 짜기로 유명하기도했다고.

당신의 학창시절과 비교해 볼때 요즘의 대학생들은 총명하고 실용적이지만 학문에 대한 진지성이 부족한 것같다면서 "매사에 충실하고 학문에 열중해서 사회의 유능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퇴임인사를 대신하셨다.

체력이 허용할때까지 연구활동을 계속하시겠다는 교수님은 환갑이 넘은 얼굴에도 학문에의 의욕이 넘치고 있었다.

1952년본교에 부임하신 이래 금년8월31일로 정년퇴임하시는 외국어교육원장 吳碩奎(문리대영문과) 교수님. "근30년간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것이 섭섭하나 자기충실을 기할수 있는 시간을 얻은것으로 자위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히시는 노학자님은 짚은 회상에 잠기시는듯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제까지는 여러가지 면에서 분주한 생활을 했는데 직책을 떠난 이후로는 못다한 자기학문·정신적인 충족작업을위해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이 아니라, 좋는 생활을해야겠다"고 말씀하신다.

73년 외국어교육원장에 취임하신 이래 7년동안 외국어교육원을 해오신 교수님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외국어속담의 정상적인 방법은 회화를 먼저 배우고 글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나의 소신이고 교육계의 방향이므로 미력을 다했으나 시설부족·요원부족·커리큘럼상의 애로때문에 충분한 회화교육을 못맡겨이 아쉽다"고 하신다. 오늘처럼 국제정세·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현대 대학생의 바람직한 상에 대해 "학생들이 시대에 부응하기 보다는 조금의 세계적·문화적 위치 경제적사정등 모든 것을 깊이 깨닫어서 좀더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학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상"을 강조하셨다.

본교 재직시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4·19직전, 본교분위에 앞장선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당국에 각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던일"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셨다. 일제치배하서 학창시절을 보낸 교수님이 민족교육을 동감하고 교육계에 투신한지 4십여년이란 세월이흘렀으나, "조금도 후회없이 자랑스럽게 정년퇴임을 아쉬워 하시는듯했다.

2. 命名案및 배경

①石造館을 明進館으로 明進은 開明進步의 뜻을 가지고 본교가 개교했던 최초의 교명인 박·현석조 관은 본교 최초의 본교명전이라 함. 건물이므로

②本部를 大學本館으로 본부 또는 본부건물이라고 불려져 왔으며 이경우 기능적 성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大學本部 또는 本館 등의 이름으로 결정되다가 大學本館으로 결정.

③G建物을 惠化館으로 惠化는 惠化洞에 있던 惠化專門의 교명을 살린것이며 일반적으로 동국대의 교목名中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임. 불교적인 부드러운 어감도 가지고 있음.

④師大建物을 學林館으로 學林은 佛敎中央學林의 교명에서 摘出한 것으로, 近代敎育에 있어 學林〉은교육기관을 뜻하는 용어임.

⑤복지회관을 茶香館으로 복지의돌교육의로〈長興〉 복지의돌교육의로는 차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에서 茶가 중시되므로 茶香館으로 명명하였으나 茶香館으로 결정.

⑥선우학숙소를 金剛館으로 금강은 강건, 불변, 용맹, 정진등을 상징하며 독히 불교의 金剛力士는 심신이 강력하고 正法을 수호하는 勇者이다. 이런 뜻에서 金剛軒으로 명명할 것을 결보하였으나 이역시 명칭의 통일성을 위하여 金剛館로 결정.

⑦1, 2, 3공학관 전체를 元興館으로 〈元興〉은 원효사상의 현대적 부흥을 의미한 元興寺의 점이름으로 본교가 불교적인 꼿이며 현 工學館은 본 남산교사가 터치였을 때에 本願寺의 위치한 것임.

3. 기타문제

作名이란 대단히 속한까다롭고 어려운일이다. 사람마다 견해와 취향이 다르므로 누구나 모두 만족할만한 이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일이다. 동우에게나 만족할만한 명칭 역시 관계자들에게 일에 있어 명칭이 없이는 최선을 찾기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작게는 관청이나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러대게 되었다.

1978년에는 제1차로 한상범교수 강창호교수 송인교수가 각 건물의 명칭을 각각 작성 제출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1979년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을 건물명칭선정위원으로 위촉 李敏昌(佛大) 吳國根(文理大) 朴鳳春(法政大) 趙炳燮(農大) 南豊祐(工大) 朴先榮(師範大) 교수등 7명 외에 회의진행과 총괄의 책임자로 洪起三(文理大) 교수가 명칭을 필요로 하지 않음 또는 명칭이 있으면 命名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공간 ③이 기회에 命名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적재적소로 명명하여 적재적소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와같은 이유로 동문회의 의무교육을 제도는 학생, 보한되어야 하고 교직원 모두 갖추어야할 것이며 작사하는 바이다.

〈本校建物名稱 作成委員會記〉

1979년 동지섣달 이 서 제외된 명칭들이다.

위의 명칭들은 대학의 작성원칙에 따라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만 바람직하고 또한 명칭이 있는 것에 대해 이미 명칭이 있는 것은 그 유래를 대강 드 이와같은 이유로 동문회는 대부분의 기존명칭을 그대로 채택하고 다만 몇 개의 명칭을 새로 제안된 것이다.

①石造館, 白虎門, 青獅門 등 ②門명칭의 후보 大顯門 金剛門, 皇雄門, 白象門, 東岳門, 八正門, 明進門, 東明門, 佛門, 法門, 僧門, 青龍門 ③校門명칭의 후보 ④佛敎藝術館→長興軒 또는 白雪山房 ⑤其他 복수성격의 건물 ⑥복지회관→長興軒 또는 白雪山房 ⑦選手合宿所→鶴舞館 또는 金剛院 ⑧學生會館→高海(紀念)館 ⑨東友塔근처의 공원→東友林, 또는 4·19동산 ⑩김명칭의 후보 ⑪長興路 ⑫岳路 기타 등등 ⑬東岳路→東岳路 ⑭東友塔후면 공원→鹿野苑 ⑮東友林, 또는 4·19동산 ⑯김명칭의 후보 ⑰長興路 등교길→東岳路 기타 등등 ⑱東岳路→東岳路 ⑲東友塔후면 공원→鹿野苑 ⑳東友林, 또는 4·19동산 ㉑복지회관→長興軒 또는 白雪山房 ㉒選手合宿所→鶴舞館 또는 金剛院 ㉓學生會館→高海(紀念)館.

이상과 같이 제출된 신 후보명칭을 검토 연구하여 동우원회의 결정 명예에서 摘出한 것으로, 近代敎育에 있어 學林〉은교육기관을 뜻하는 용어임.

새 명칭 佛敎的 東國文化 學統의 맥락 찾아

書評

尹錫浩 詩集 「永遠의 아침」

尹錫浩君의 詩集이 나와서 반갑다. 높은학위文壇에 나온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달래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젠 몰낭일이고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니었던가생각할 뿐이다. 文學이라는 것이 또 詩나 人生 그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단정할수 없는 것이며 이제 40을 넘엿으니 해놓은것 없지만〈不惑〉의 나이이니 계속詩나 쓰다가 가면 가고오면 오고 왔다 갔다 숲회진생에서 永遠을 잘분이다.

이 永遠이라는 말은참 좋은 말이어서 이 永遠을 체득하면 적어도 세상을 알만한 것이며 여기다 눈 옷을이라도 境地에 이르게 되겠지 싶다.

尹錫浩君은 永遠이란말을 잘 쓰고 거기에 많이 가까와진 줄안다. 詩集 76페이지에 「徐廷柱」란 제목의 詩를 읽어보니 아주 잘된 구절이있어 옮겨 보면,

구름과 한가로이 마주 앉아 對酌하다가 돌아와 먼-산 바라보는 눈빛속엔 진달래 지고 피었다 지고 있는 아이들이 죽은 영혼을 길어 올리듯 沈默된 內密의 어둠을 밤 久遠히 일어서는 久遠한 의지의 모습이여.

(中略)

어기서도 매한 가지지만 情緖의 創意性이할지 그 이미지가 조용하면서도 숨찬 맥락을 놓수있다.

永遠을 좋은게지만 現實을 무시할수 없는 처지여서 이걸 조화해 보려고 두덤히 천착하는모습이 보인다.

詩集 전체 47편의 詩題들이 아주 生活的인 것이면서 잘도 詩로 形象시켜 놓은걸 보면 참 詩가 그렇게 놓은걸 돼도 필성 싶다. 文運을 빌분이다.

鄭光修〈同門詩人〉

빛과 존재

金基珠·丁時樂 2인시집

본교 국문과에 재학중인 김기주君의 文友 정시영군과 2人시집 「빛과 존재」를 방학기간중에 발간하였다.

모든 것을 드 겁게 포용하려하고 진실에 보다 접근하려는 군의 성실성이 40여 작품속에 반짝인다.

<전주 대흥출판사刊·2,000원>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崔仁勳 著

흔들리지 않는 구성, 시로 장식된 지문, 압축된 대상, 그리고 넓은 의미의 시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최인훈의 극작세계가 문학과 지성사刊의 희곡전집 「옛날 옛적에 훠어이훠이」에 집약되어 선보였다.

<문학과 지성사刊·1,600원>

등대선

지크프리트 렌쯔 著

모순된 현실에 처한 고독한 현대인의 좌절과 극복의 문제를 다룬 렌쯔의 등대선」이 安三煥譯으로 心象社에서 나왔다.

현대 독일문학의 신화를 창조한 베스트셀러 문제작가인 렌쯔는 등대선」에서 수준높은 우의성으로 인간이 지닌 용기와 행동의 그늘 속에 숨어 있는 비겁성을 보여줌으로써 참다운 인간상을 깨닫게 한다.

<心象社刊·1,800원>

狀況과 想像力

金炳翼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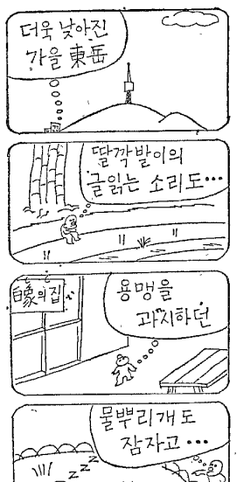
金炳翼의 전21편의 논문이 실린 평론집 「狀況과 想像力」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엔 분단의 현실과 정신적 폐쇄성, 소외계층의 삶과 지식인의 고뇌등 70년대의 상황이 제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러모순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나타나 있다.

<문학과 지성사刊·3,200원>

새책 안내

現實生活과 永遠을 詩로 形象化



비오는 날 (四)

金基珠

하늘이 우울에 잠기고
차창으로 아빠가 출려가며 보였다.

그런 날이면
내 거리에 깊 잃은 양들 위로
한 가을의 비가 내리곤 하였다.

우러러 보면 무거운 하늘
많지 않은 바람들 사라져 가고,
지친 버스 속엔 빛 잃은 표정

문득 도시의 싸늘한 밤 위로
터져 옴 트는
그대 하늘의 눈물이여.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한과
얼마나 많은 그리움을 묻어두고
이제는 또 거리를 흘려야 한다.

긴 밤 내내 비가 내리고
깊이 깊이 나는 잠들었다.
꿈 속을 걸어가는
누구의 뒷모습이 보이곤 하였다.

<文理大 국문·1>

※이 작품은 여름방학중 발간된 金君의 詩集 「빛과 존재」에서 전재한 것임 <편집자 주>

메아리

장학제도

▲아직도 무상기우해서라도 단독의 장학제 마치지도 못한다. ▲유선 장학재단이 서는 이들이있 윤을 가지있는 하나가장학지급에의한것 가장 유아기에고 방법중의 이나말까. 최근 몇몇 재 이아말 장학사업을 시작 은 기업들이 의면하고있는 것도사실이다. ▲다음으로 그나마의 장학금마저 가 사사유보다는 성적에 사사유보다는 성적에 있는 학생들을 빌수 있는 해 지급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장학금에는 면학장려의 의미가 있는 것은사실이다. 그러나두가지 기준중 하나만 택해야 할 경우라면 가사를 우선하는것이사회정의로 보아더정실은정반대의현상을 보이고있다는말이다. ▲내년부터는 「國장학금」이 지급될수있으리라는전망이다. 종합대학이라는, 또개교 70주년 기념장학사업이라는 의의를 감안할때 학생들의 과업과는 심각하다. 즉, 민주주의의커다란 지주인 기회균등의 원칙마저위협받고 있는것이다. 세습적 富와 세습적 빈곤이 쌓이게 된다면, 또 전술한 여러 사실들이 그런한 경향을 예고하고 있다면: 그럼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우리는 장차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만, 중요한 것은 大義 학금 제도를 갖고있다. 요 행정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아직도 무상기우해서라도 단독의 장학제 마치지도 못한다. ▲유선 장학재단이 서는 이들이있 윤을 가지있는 하나가장학지급에의한것 가장 유아기에고 방법중의 이나말까. 최근 몇몇 재 이아말 장학사업을 시작 은 기업들이 의면하고있는 것도사실이다. ▲다음으로 그나마의 장학금마저 가 사사유보다는 성적에 사사유보다는 성적에 있는 학생들을 빌수 있는 해 지급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장학금에는 면학장려의 의미가 있는 것은사실이다. 그러나두가지 기준중 하나만 택해야 할 경우라면 가사를 우선하는것이사회정의로 보아더정실은정반대의현상을 보이고있다는말이다. ▲내년부터는 「國장학금」이 지급될수있으리라는전망이다. 종합대학이라는, 또개교 70주년 기념장학사업이라는 의의를 감안할때 학생들의 과업과는 심각하다. 즉, 민주주의의커다란 지주인 기회균등의 원칙마저위협받고 있는것이다. 세습적 富와 세습적 빈곤이 쌓이게 된다면, 또 전술한 여러 사실들이 그런한 경향을 예고하고 있다면: 그럼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우리는 장차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만, 중요한 것은 大義 학금 제도를 갖고있다. 요 행정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文化雜信

「달아달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시민극장 6~12일 극단「시민극장」은 오는 인운作「달아 달아 밝은달아」를 실연 연출로 4시와 7시에 세실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민중의 고난을 동시에 보여주는 현대 신경지를 개척한 이작품은 「심청전」에 민족주체성 민족주체성의 의무교육을 제도는 학생, 보한되어야 하고 교직원 모두 갖추어야할 것이며 작사하는 바이다.

거론 「발탈」

공간사랑 8~16일

극단「거론」은 8월 무형문화재 제3회로 발탈을 극부대 제3회로 발탈을 조승희의 의식주 생활을 연출한 추정하는 그기원을 민속의 세계적으로 소리와 재담과 춤을 미를 주제로 보여주는 춤과 어찌보면 공연이 재담과 발탈을 음악과 춤과 어찌보면 춤과 발탈을 민속의 그기원을 살국시로 유일한 추정하는 세계적으로 먹보는 춤이 춤과 춤과 춤과